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아주통상과 양기욱 과장(2110-4620), 김지연 사무관(2110-4627)

대통령 베트남 순방 경제분야 주요성과 평가

- 공동성명, 경제인 행사 등 -

1. 대통령 베트남순방 개요

□ 순방개요

○ 방문기간·도시 : '13.9.7(토)~11(수) 4박 5일, 베트남(하노이, 호치민)

○ 수행경제인 : 79명

* 주요기업 18, 중소중견기업 40, 금융 5, 경제단체 및 협회 12, 기타 4

□ **(정상성명)** 양국 정상은 정상성명을 통해 **2020년까지 교역 700억불**이라는 교역목표를 제시하고 **2014년까지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체결**을 위해 노력하기로 선언함.

○ 특히, **한국형 원전개발 협력**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분명히하고, **응이손2 화력발전소, 융깟 석유비축사업** 등 한국의 주요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함.

□ **(경협행사)**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**한-베 경제협력간담회**를 개최하고, **원전산업 로드쇼 및 세미나, K-Move 상생협력센터 개소식**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기회를 확대함.

○ 호치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견기업 **한세베트남을 방문**하고 **현지진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**를 개최하여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을 격려하고 동반성장 및 동반진출 지원의지를 밝힘

2. 무역통상분야

□ **(무역 비전)** 양국 정상은 2009년 설정한 2015년 200억불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**새로운 무역목표로 '2020년까지 700억불'을 달성**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.

○ 이번에 제시된 2020년 700억불은 **지난해 양국 간 무역액 216.7억불의 3배가 넘는 액수**로서 양국 정상이 무역, 투자 등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평가됨.

* 베트남은 지난해 **우리의 6번째 수출대상국**으로서 최근 5년간 베트남과의 교역은 연평균 24.8% 증가

□ **(한-베 FTA)** 통상분야에서는 양국이 **정상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2014년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-베 FTA 체결을 선언**하고, 이를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함.

○ 지금 한국과 베트남은 한-아세안 FTA가 체결되어 있지만 자유화 수준이 낮아 **일-베트남 FTA**('09.10 발효)**를 체결한 일본에 비해 불리**한 상황

* 베트남의 대한 양허수준이 80% 수준('12년, 품목수 기준)인데 비해 대일 양허수준은 92% ('14년 대부분 품목의 관세 인하 예정)

○ 한-베트남 FTA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로 타결될 경우, 우리 **수출주력품목의 베트남 시장 경쟁력이 강화**되고, 서비스·투자·통관 뿐만 아니라 신무역규범인 지재권, 경쟁, 전자상거래, 노동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하여 우리 기업의 **투자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**

* 한-아세안 FTA에는 규범 요소가 전혀 없으며, 일-베 EPA에도 지재권 및 경쟁만 포함

○ 한-베 양국은 3차 협상(10.16~18, 부산)부터 전자상거래, 경쟁, 정부조달, 노동·환경 등에 대한 **전문가대화**(Expert Dialogue)를 개최하여 논의 추진

3. 원전 등 프로젝트 협력

□ **(원전협력)** 이번 성명에서 **"한국형 원전"을 명시한 "한-베트남 원전 건설 종합계획**(OJPP : Overall Joint Proposed Plan)"을 공동성명에 명기하여 한국형 원전 추진을 사실상 확인하면서 향후 **"원전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**"하기로 합의함.

○ 특히, 양국 원전 협력을 위한 **"예비타당성 조사가 개시"**되었음을 언급함으로써 베트남 원전건설의 법적 절차가 한국의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공개함.

○ 이번에 **"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이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**"할 것이라는 표현이 정상성명에 반영된 것은 한국형 원전 사업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.

□ **(응이손2 및 융깟 석유비축 사업)** 원전과 함께,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소(23억불, 한전) 및 융깟 석유비축기지사업(1.5억불, 석유공사)의 **프로젝트 이름을 정상성명에 포함**하여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확보함.

○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, 이번 정상방문 계기에 **한국전력과 베트남 탱화성 인민위원회가 사업의 이행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**하고, **정상성명에도 구체적으로 거명**됨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.

○ 융깟 석유비축기지사업은 한국이 **지하석유비축기지의 설계·건설·운영을 모두 담당하는 최초의 사례**로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베트남내 추가 기지는 물론, 인도, 태국 등 **아시아 지역의 지하석유비축기지 건설 사업**에 참여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됨.

□ **(남부지역 발전사업)** 특히 주목할 것은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**베트남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**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데 대해 **베트남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**한 것임

○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베트남은 현재 2500만KW인 발전용량을 2020년까지 9000만KW로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**발전소 증설 계획의 70%가 남부지역에 집중**

○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최근 베트남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, 대표적인 것으로는 **롱푸3 화력발전소**(2000MW, 36억불 규모, 대림건설·동서발전), **빙탄4 화력발전소**(1200MW, 15억불 규모, 두산중공업), **키엔룽 화력발전소**(1200MW, 15억불 이상 규모, 현대건설·남부발전) 등이 있음.

○ 이번 양국 정상의 합의가 **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발전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**으로 기대됨

4. 투자환경 개선 및 기타 분야

□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베트남측은 "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**투자 및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**"하기로 약속함.

□ 특히, 9.8일(일) 오후, 민관 공동으로 **한-베트남 경제협력간담회** 개최되었는데,

○ 베트남 경제담당 부총리 (황 쭝 하이, Hoang Trung Hai), 기획투자부 장관 (부이 쾅 빙, Bui Quang Vihn), 산업무역부·재무부 등 4개 부처 차관과 20개 주요성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**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하고 개선책을 적극 모색**해 나가기로 약속함.

□ 또한, 이번 순방계기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베트남 산업무역부간 "**유통물류 협력 MOU**"도 체결함.

○ 이번 유통물류 협력 MOU를 통해 양국 정부간 유통물류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**한국 기업들이 인구 9000만의 베트남 내수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**으로 기대됨.

5. 경제인 행사

□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는 역대 최대인 **79명의 경제사절단**이 대통령을 수행(방중시 72명)

○ 베트남 경제사절단은 **역대 최초로 산업부에서 직접 개방형 공개모집**을 통해 선정을 했고, 그 결과 **중소중견기업인이 절반 이상**(협회대표 기업인 포함시 48명)을 차지함.

□ 경제사절단 참가 기업은 **한-베트남 경제협력 간담회**(9.8 오후) **및 만찬**(9.8 저녁, 대통령 참석), **중소중견기업 오찬간담회**(9.8 낮, 산업부 장관 주재)에 참여했고, 베트남 국가주석 주최 **국빈만찬**(9.9 저녁)에도 **희망자 전원이 참석**함.

○ 이번 경제사절단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 베트남 기업과 사업진전을 모색하고 **베트남 고위 경제관료들과의 네트워크 기회**도 가짐.

○ 특히, 우리 **중소중견기업**들은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기업이 경제사절단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, 평소에 접근하기 힘든 베트남 고위관료들과의 친분도 쌓을 수 있어 **이번 경제사절단 구성 및 활동에 대해 어느 때 보다 큰 만족감**을 표현함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아주통상과 김지연 사무관(☎ 02-2110-462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한-베트남 교역현황

□ 지난 '92년 한·베트남 국교수립 이래 **양국간 교역규모는 40배 이상 성장**하여 '13.6월 베트남은 **아세안 제2위 교역 대상국**

* '13.6월 아세안 교역규모 순위(억불): ①싱가포르(171.9), ②**베(133.2)** ③인니(128)

○ '13.6월 한국의 **對베 수출액은 100.4억불**(전년대비 34.5% 증가), **수입액은 32.8억불**(전년대비 32.1% 증가)으로, **67.6억불 흑자** 기록

* 전통적으로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국임

< 한-베트남 연도별 교역 현황 >

(단위 : 억불, 전년동기대비 %)

구 분	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.6
수 출	금액	34.3	39.3	57.6	78.0	71.5	96.5	134.6	159.5	100.4
	증가율	5.4	14.5	46.7	35.5	-8.4	35.0	39.5	18.4	34.5
수 입	금액	6.9	9.3	13.9	20.4	23.7	33.3	50.8	57.2	32.8
	증가율	3.1	33.3	50.5	46.4	16.3	40.5	52.6	12.5	32.1
무역수지		27.4	30.0	43.7	57.7	47.8	63.2	83.8	102.3	67.6

□ **수출 품목**은 **현지 투자진출기업의 생산과 관련 부품, 소재** 위주, **수입 품목**은 자원 및 섬유·신발 등 **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역수입** 위주

○ '12년 수출은 반도체, 무선통신기기,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합성수지, 철강판 등 5대 품목이 對베트남 수출의 약 37% 차지

○ 동 기간 5대 수입 품목은 원유, 의류, 신발, 목재류, 기타석유제품이며, 對베트남 수입의 약 47% 차지

< 한-베트남 품목별 교역현황 >

(단위 : 백만불, 전년동기대비%)

순위	수출('13.6월)			수입('13.6월)		
	품목명	금액	증가율	품목명	금액	증가율
1	반도체	1,403	33.1	원유	613	142.1
2	무선통신기기	691	190.5	의류	542	38.4
3	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	554	101.0	신발	189	25.3
4	합성수지	548	33.6	목재류	112	36.1
5	철강판	497	△14.6	기타섬유제품	101	23.1
	총계	**10,044**	**34.5**	**총계**	**3,284**	**32.1**

참고 2 한-베트남 투자현황

□ 한국의 對베트남 투자는 지속 확대되어 **현재 3,352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(약 2,700여개 한국기업), 한국은 일본에 이은 제4위 투자국**

* ①일본(1,990건, 327억불) ②싱가포르(1,164건, 283억불) ③대만(2,256건, 274억불) **④한국(3,352건, 255억불)** ('13년 6월 누계(신고)기준, **베측(MPI)통계**)

○ **베트남은** 미국, 중국, 홍콩에 이어 **한국의 제4위 투자대상국***임과 동시에 **아세안 최대 투자대상국**으로 '13.3월 누계 **156억불 투자**

* 한국의 투자순위('13.3월 누계(신고)기준, 수은) : ①(미국) 21,947건, 650억불, ②(중국) 46,998건, 575억불, ③(홍콩) 4,271건, 177억불 **④(베트남) 6,993건, 156억불**

□ 제조업 투자는 베트남 경제 발전에 따라 전기·전자 분야 등으로 고도화

* 제조업종별 투자 비중 변화('92~'00→'06~'10)p: 경공업 36.4% → 26.1%
1차금속 및 전기·전자 등 30.4% → 36.8%

○ 對베 5대 투자분야는 **제조업**(67.0억불), **광업**(32.9불), **부동산업·임대업**(24.8억불), **건설업**(11.5억불), **금융·보험업**(6.1억불) 순('13.3월 누계(신고), 수은)

* 주요투자기업 : 삼성전자, LG전자, 두산중공업, 현대중공업, SK에너지, GS건설, 한국전력공사, 포스코, 삼성물산, 경남건설 등

□ 한편 **베트남의 對韓 투자는 총 102건, 총 13.4백 만불**(13.6월 누계(신고)) **로서 건수나 금액면에서 미미한 수준**임

○ 베트남의 對한국 투자는 '05년 1.1백만불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있다가 '11년에 투자가 급증하여 5.0백만불을 기록한 이후 다시 감소

* **투자추이**(단위:백만불): ('07)0.5→('08)0.4→('09)1.0→('10)0.8→('11)5.0→('12)1.7→('13.3)1.6

< 한·베트남 연도별 투자 현황(신고기준) >

(단위 : 백만불, 건)

구 분	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	'13.	누계*
對베 투자	금액	390	1,793	2,780	1,913	964	2,147	1,511	913	262	**15,570**
	건수	379	572	839	826	643	763	723	737	199	**6,993**
對韓 투자	금액	1.1	0.4	0.5	0.4	1.0	0.8	5.0	1.7	1.6	**13.4**
	건수	3	5	7	9	13	15	15	14	5	**102**

* 누계 : 對韓 투자 ('62년-'13.6월), 對베트남 투자 ('68년-'13.3월)

참고 3 새로운 무역목표 '2020년까지 700억불' 설정

□ **(현황)** 양국간 교역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양국 수교 20주년 만에 교역규모 200억 달러 이상 기록

○ '09년 당시 양국은 '15년까지 무역액 200억불을 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,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 '12년에 달성 성공

* 한-베 교역액(억 달러): ('09)95.2 → ('10)129.8 → ('11)185.5 → ('12)216.7

○ 對 베트남 수출은 지난 10년간('03~'12) 연평균 22.5%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, 지난해 우리나라의 제6대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

*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경기침체로 다소 둔화됐으나, 베트남은 수출 상위 10대 대상국 중 유일하게 10% 이상의 증가율 기록(18.5%)

□ **(전망)** 향후 양국간 무역이 확대 균형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2020년에는 양국간 무역액 700억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* 무역액 700억불은 연 16% 성장시 달성 가능한 목표치로, 성장추이(최근 5년간 연평균 24.8%, 최근 3년간 연평균 31.5%) 및 한-베 FTA('14년 타결 예상)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한 수치라 판단됨

참고 4 '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-베 FTA' 체결 선언

1. '높은 수준'의 구체적 의미

□ 일반적으로 FTA 협상에서 '높은 수준'이란 **협상 대상 품목수 또는 수입액 기준 90% 이상 관세 철폐**를 의미하며,

○ 한-베 FTA 체결로 한-아세안 FTA 수준보다 높고 **최소한 일·베 EPA 양허수준**(최장 17년간 품목수 기준 92% 관세철폐) **이상**의 양허 개선 노력

* 한-아세안 FTA의 경우, 최장 10년간 품목수 기준 90%의 관세철폐 달성

FTA	관세철폐 일정 (품목수 기준)	
	한국	베트남
한-아세안 FTA ('07.6월)	ㅇ **일반품목 (90%, 관세 철폐)** - ('10) 관세철폐 완료 ㅇ **민감품목 (7%, 관세 인하)** - ('16) 0-5%로 인하 ㅇ **초민감품목 (3%)** - 관세 상한, 관세 인하, 관세할당, 양허제외	ㅇ **일반품목 (90%, 관세 철폐)** - ('13) 50%, ('15) 90%, ('16) 95%, ('18) 100% 관세철폐 완료 ㅇ **민감품목 (7%, 관세 인하)** - ('17) 20%, ('21) 0-5%로 인하 ㅇ **초민감품목 (3%)** - 관세 상한, 관세 인하, 관세할당, 양허제외
	일본	**베트남**
일-베트남 EPA ('09.10월)	ㅇ **관세철폐 품목 (93%)** - ('09, 즉시) 88%, ('19) 92%, ('24) 관세철폐 완료 ㅇ **기존관세유지, 관세인하, 관세할당, 양허제외 등 (7%)**	ㅇ **관세철폐 품목 (92%)** - ('09, 즉시) 28%, ('19) 75%, ('24) 90%, ('26) 관세철폐 완료 ㅇ **기존관세유지, 관세인하, 관세할당, 양허제외 등 (8%)**

○ 아울러, 양허 범위뿐만 아니라 **즉시철폐 비율을 높이고, 관세철폐 일정을 단축**시키겠다는 의미도 포함

* 중-아세안 FTA 일반품목은 '15년 관세철폐로 한국보다 관세철폐 일정이 빠름

2. '포괄적'의 구체적 의미

□ FTA에 상품, 서비스, 투자, 원산지뿐만 아니라 新무역규범인 **지재권, 전자상거래, 경쟁, 노동, 환경** 등 전반적인 분야를 포함시키는 수준

* 한-아세안 FTA에는 규범 요소가 전혀 없으며, 일-베 EPA에도 지재권 및 경쟁만 포함

○ 한-베 양국은 3차 협상(10.16~18, 부산)부터 전자상거래, 경쟁, 정부조달, 노동·환경 등에 대한 **전문가대화**(Expert Dialogue)를 개최하여 논의 추진

참고 5 원전협력 관련 정상선언문의 의미

□ 정상선언문의 의미

① 2011년에 채택된 "베트남 원전건설 종합계획(OJPP)"을 금번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하여 **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함**

* OJPP의 목적에서 "동 계획은 베트남 정부가 APR1400(한국형 원전 모델) 채택을 위한 결정의 근거로 활용됨"을 명시

② "예비타당성 조사가 개시된 것"을 명시하여 베트남 원전 건설의 **법적 절차를 한국과 공동으로 수행**하고 있음을 **대내외에 공개**

* (베트남 원전건설 절차) 예비타당성 조사 → 국회 승인 → 정부간협정(필요시) → 본타당성 조사 → 상업계약 → 원전 건설

○ 금년 6월부터 베트남 제3원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양국 공동으로 베트남 내 2개 후보 부지(중부지역)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, 이를 정상선언문에서 명시함으로서 한국이 제3원전 건설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힘

* 제1원전(일본), 제2원전(러시아)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베트남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바,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상선언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

③ 베트남 원전 산업 육성에 **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의 기여 가능성**을 높게 평가하여 **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베측이 인정**

④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(2014년말 종료 예정)를 거쳐 양국이 **베트남 제3원전 건설을 위한 협력을 차질없이 진행**하기로 함

참고 6 베트남 응이손II 입찰사업 한전-탱화성간MOU 개요

1. 사업추진 경과

❑ '13. 3월 한전은 일본 마루베니社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3억불 규모의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수주

• 발주처: 베트남 산업무역부	• 지분비율: 한전(50%), 마루베니(50%)
• 용량/연료: 1,200MW, 수입유연탄(인니)	• 사업방식: BOT(사업기간: 25년)
• 사업부지: 북부 응이손 경제구역	• EPC: 두산중공업, O&M: 한전

❑ 공식 사업수주 이후 KEPCO는 재원조달 종결 및 발전소 조기 착공을 목표로 공동 사업주(Marubeni)와 긴밀히 협력 중

❑ 사업계약 조기 체결을 위해 발주처(MOIT, 산업무역부)와 협상 중

2. 사업부지 관할 지방성과 MOU 추진

❑ 부지 관할 탱화성(Thanh-Hoa Province)은 사업 부지계약 체결 당사자인 응이손 경제구역 (NSEZ) 관리청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, 경제구역 활성화를 위해 발전소 건설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음

- 탱화성장 : Mr. Chien (중앙정부 차관급 보다 상위직)

❑ 본 사업의 성공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해 탱화성의 적극적인 지원이 관건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

❑ 금번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KEPCO-탱화성간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(MOU) 체결을 추진

MOU 주요내용

✓ 탱화성 : KEPCO의 발전소 건설 지원(부지 및 건설 인력 제공)

✓ KEPCO : 사업기간중 탱화성 경제활성화 지원(고용창출 및 인력양성)

참고7 유통물류 분야 협력 MOU체결

□ 추진배경

○ 베트남은 '12.3월 한-베트남 공동위 논의과정에서 유통·물류 분야의 양국간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제안한바 있으며, '13.6월 통상협력 국장의 베트남 산업부 방문시도 동 MOU 체결을 희망

□ 합의한 MOU의 주요 내용

○ **(목적)** 양국간 유통·물류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·법규, 표준, 기술지원 등 유통·물류 관련 경험을 공유하는 MOU 체결

○ **협력방법 (Modes of Cooperation)**

- **(정부간 정례협의체 개최)**(VT추가제안) 한국과 베트남에서 연례적 또는 적절한 시기의 국장급 정책 협의 개최(Policy Dialogue on Distribution and Logistics)

  * 필요에 따라 양국의 학계 전문가, 정부기관 또는 민간 기업 등이 참여

- **(양국간의 경험공유)** 워크샵 또는 라운드테이블 개최 등을 통한 유통·물류분야의 정책, 규제, 표준, 기술 등의 경험 공유

- **(기업지원)** 유통·물류분야 양국 기업 지원활동을 위한 토론 등

- **(공동협력사업수행)** 유통·물류분야 공동 협력사업 계획 및 실행

- **(협력기관지정)**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한 협력기관 지정과 사업수행

□ 향후계획(안)

○ 국장급 정책회의를 위한 사전 업무협의 (9월)

○ 협력기관 선정 및 기관간 MOU 체결 (10월)

○ 한-베트남 유통·물류 심포지움 개최(11월, 한국)

○ 한-베트남 유통·물류 정책회의 개최(11월, 하노이)

참고8 베트남 유통시장현황

□ 베트남 유통시장 현황

○ **(시장규모)** 베트남 유통산업*은 전체 **GDP의 15% 이상**을 차지하며 최근 20~30%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연간 540만명의 일자리 창출

* ('08) 60.74, ('09) 68.33 ,('10) 82.80 ,('11) 95.50 ,('12) 117.47 십억달러

○ **(경쟁동향)** '11년 기준 약 50만개의 유통기업이 있고, 전통적 재래시장이 다수*이나, 외국계 기업의 유입 등으로 슈퍼마켓과 쇼핑센터가 최근 빠르게 확산**

* 개인시장 46%, 재래시장 40%, 슈터·쇼핑센터 등 서구형 11%, 기타 3%

** 슈퍼마켓 615개, 쇼핑센터 102개

○ **(주요기업)**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인 Saigon Co-Op('10년 매출 6억달러)과 Hapro('09년 매출 3.5억달러)가 있으며, 외국계 Big C Bourbon(프랑스), Metro(독일), Parkson Corporation(말레이시아,백화점), 롯데마트 등이 있음

□ 국내기업 진출 현황

○ 국내기업의 對베트남의 도·소매분야 투자*는 '13년 6월 14백만달러로 **전체 투자액의 5.3% 차지**

* ('08) 18, ('09) 18, ('10) 31, ('11) 84, ('12) 121, ('13.6) 14백만달러

○ **(진출애로)** '07년 WTO 가입 이후, '11년부터 외국인100% 단독투자 가능하나 **외국기업 출점시 ENT* 규제**, 토종 기업과의 경쟁, 높은 임대료, 물류 인프라 부족 등이 외국기업 진출시 애로사항으로 작용

* 4가지 평가항목 : 유통매장수, 시장안정성, 인구밀집도, 계발계획과의 부합성

< 베트남 진출 유통업체 현황>

구 분	기업명	진출수	비 고
대형마트	롯데마트	4개	2006
홈쇼핑	바비홈쇼핑트루GS	700만가구	2012.2
	SCJ홈쇼핑(CJ오쇼핑)	호찌민·하노이 등 4개소시	2011.7
	롯데닷비엣	150만가구	2012.2
프랜차이즈	CJ뚜레주르	14개소	2007
	빠리바게트	1개소	2012.3
	롯데리아	110개소	1998
	BBQ	34개소	2003

참고9 베트남 경제사절단 모집 관련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9.5일(목) 오전 박근혜 대통령 베트남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명단을 발표함.

○ 산업부는 지난 8.30일(금) 홈페이지를 통해 경제사절단 모집을 공고하고, 9.2일(월)까지 이메일을 통해 총 107개 기업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이날 **최종 79명의 명단을 공개**함.

○ 산업부는 이번 경제사절단 선정을 위해 주요 **경제단체 대표, 베트남 진출 주요 업종별 협회 대표, 학계·전문가, 시민대표로 선정위원회를 구성**하여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함.

○ 산업부는 경제사절단 **선정기준**으로는 공고에 게시된 바와 같이 ① **사업관련성** (베트남 교역 및 투자 여부, 구체적 사업계획), ② **순방활용도** (정상외교 계기 사업 진전 및 성과 창출), ③ **사업유망성** (추진사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가능성)을 고려하였다고 밝힘.

□ 베트남 경제사절단은 경제사절단 모집 사상 처음으로 경제단체를 통하지 않고 **기업이 이메일을 통해 직접 정부에 신청**하였고, 민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짐으로서 **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**을 높인 것으로 평가됨.

□ 베트남 경제사절단 규모는 중국 경제사절단(72명)을 넘어서는 **역대 최대 규모**로 개방형 공모를 통해 **중소중견기업의 참가인원 및 비중이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짐.**

○ **중소중견기업인(40명)이 전체 경제사절단의 절반**을 차지하며, 협회 대표로 참가하는 중소중견기업인을 고려할 경우 **경제사절단 79명중 중소중견기업인이 48명**(61%)에 달함.

* 구성: 대기업 18명, 중소중견기업 40명, 경제단체 및 협회 12명(중소중견기업 8명 포함), 금융 5명, 기타 4명
* 2009년 이명박 전대통령 베트남 방문시 경제사절단은 33명 수준(대기업 14, 중소중견기업 7 포함)
* 지난 6월 방중시, 전체 경제사절단 중 중소중견기업 비중은 46%(33/71)

○ 대기업의 경우도 오너보다는 강호문 삼성그룹 부회장,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, 김종식 LG전자 사장과 같은 **전문경영인이 경제사절단에 다수 포함**됨으로써 **실질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주력**할 것으로 전망됨.

○ 이번 경제사절단 모집이 개방형으로 이루어지면서 **다양한 분야에서 신청**이 이루어졌으며, **비영리단체인 성균관대학교**의 경우 하노이 약학대학 지원사업*이 우리 제약 수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이번 경제사절단에 포함됨.

* 성균관대학교는 교육 ODA를 통해 하노이약학대학 확대이전(총 8000명 수용) 사업을 추진 중
* 우리나라 장비와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은 베트남 약사들이 대거 배출될 경우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 제고에 기여 기대 (베트남은 우리나라 완제 의약품 최대 수입국으로 2012년 1.45억 달러 수입)

참고10 경제협력 간담회(9.8) 개요

1 행사 개요

□ **일시** : 2013. 9. 8(일) 16:00 ~ 17:50

□ **장소** : 하노이 그랜드플라자호텔 2층 그랜드볼룸

□ **참석자** : 총 200여명

○ 한국측 : **산업부 장관,** 경제수석, 대한상의, 경제사절단 등 100여명
○ 베트남측 : 부총리, 베트남 상의 회장, 주요 장관 및 지방성장, 주요기업인 등 100여명

2 세부 내용

시간	프로그램	내 용
15:30-16:00 (30')	**등 록**	참석자 등록 및 리셉션
16:00-16:02 (2')	**개회선언**	사회자 개회선언 ※ 사회 : 대한상의 베트남 사무소장
16:02-16:18 (16')	**환영사 및 축사**	○ 개회사 : 상의회장(3') ○ 환영사 : VCCI 회장(3') ○ 축사 : 베부총리(5') ○ 축사 : 산업통상자원부 장관(5')
16:18-16:28 (10')	**베트남측 발제**	주제 : 베트남 투자유치 계획(기획투자부)
16:28-16:38 (10')	**한국측 발제**	주제 : 양국 경제협력 현황 및 방향 (수출입은행)
16:38-17:45 (62')	**건의 및 답변**	○ 한국기업 건의 및 베트남측 답변 ○ 베트남측 건의 및 한국측 답변
17:45-17:50 (5')	**맺음 말씀**	○ 양측 정부 인사